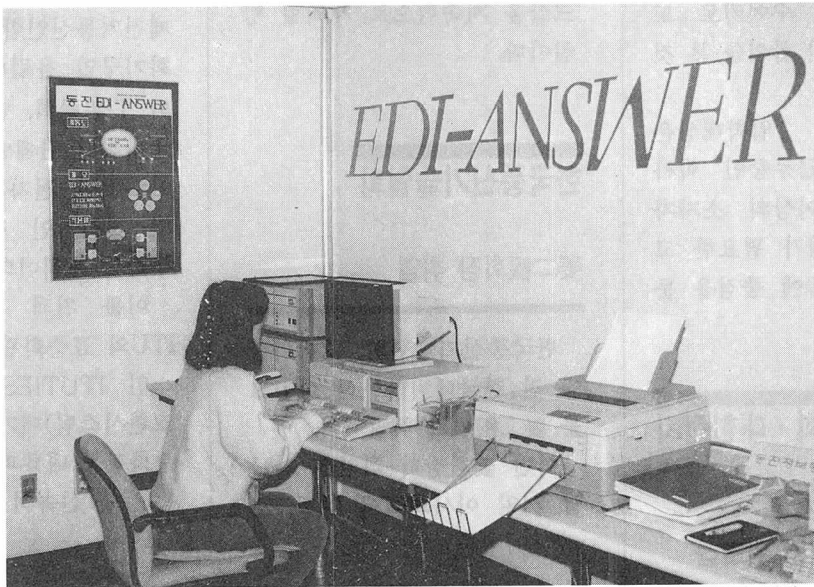




동진정보통신(주)

PC-LAN에서 EDI시스템

구축까지 토털솔루션 제공



동진은 자매회사인 Datacom사와 공동으로 LAN 환경에서 운영되는 EDI ANSWER를 개발,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90년 3월 덕산정보통신(주)로 출발한 동진정보통신주식회사는 지난 8월 미국 AT&T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0월 힐튼호텔에서 그동안 연구 개발한 EDI-ANSWER(PREMISES EDI ENGINE) 제품설명회를 갖는 등으로 최근 정보통신업계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첨단제품의 자체개발 및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창립된 동사는 이미 지난 87년 회사설립을

추진하면서 국제시장정보 및 기술습득을 위해 100% 한국계 자본으로 美 현지에 자매회사인 Datacom사를 설립, 제품개발에 노력해 왔다.

동진 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보면 AT&T의 StarLAN을 중심으로한 근거리통신망사업, 부가가치통신망사업의 주요구성요소인 EDI의 개발 및 응용사업, Packet Network 등 종합정보통신망사업, IBS 관련 계획 및 기본설계, 교육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네트워크 분야에서 동진은 PC-LAN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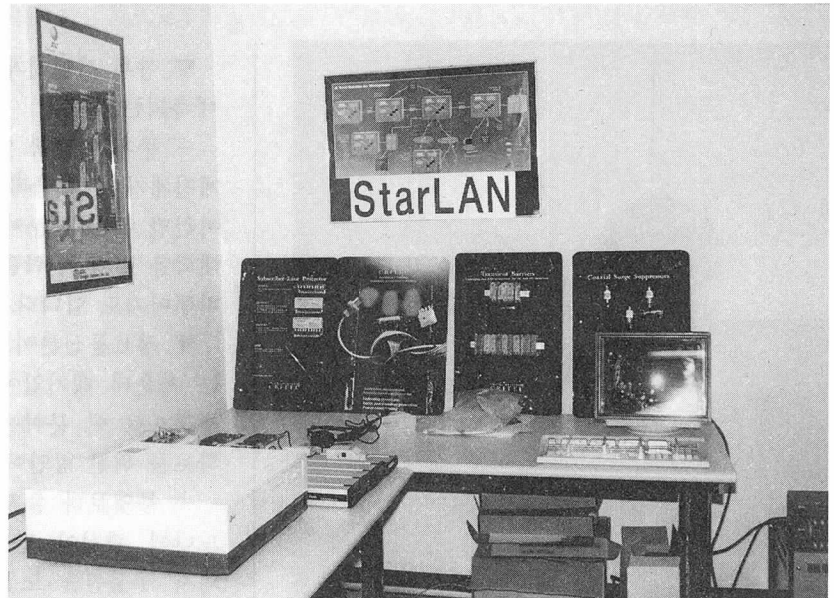
서부터 EDI시스템 구축까지 토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LAN환경에서 운영되는 PREMISES EDI ENGINE인 EDI-ANSW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자본금 2억원인 동사가 창업년도인 지난 한해동안 기록한 매출액 규모는 7천만원, 그러나 올해는 20억원으로 목표를 크게 늘려 잡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장진입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StarLAN H/W Networking Products, StarGroup S/W, DTE Family(모뎀, 프린터 등), WGS Family (PC 및 관련제품), ISN Networking Products 등 AT&T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총력을 기울이는 EDI관련 사업에서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진은 작년 7월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과거처로부터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인가받고 제품개발도 美 현지법인과 공동수행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사의 인력규모는 아직 기획관리(12), 기술연구소(10), 영업(5) 등에서 2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동진은 올해안으로 30여명의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등 회사규모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물론 지난 연말 덕산정보통신주식회사에서 동진정보통신주식회사(Dong jin Datacom Inc., Ltd.)로 법인명을 바꾼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시장환경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해 영어로 발음하기 쉽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동진정보통신이 美 AT&T사와 계약을 체결,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StarLAN.

회 사 연 혁

- 1987. 7 : 정보통신사업을 위한 국내여건조사 및 개발방향 정립작업 시작. 동시에 100% 한국계 자본으로 미국 현지에 Datacom社 설립 준비. Premises EDI 설계 개시.
- 1990. 3 : 덕산정보통신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천만원)
- 1990. 5 : 사업개시 (업종:전자, 업태:제조)
- 1990. 6 : 자본금 증자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 1990. 7 :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과학기술처 인가)
- 1990. 8 : 미국 AT&T사와 딜러계약 체결
- 1990. 9 : 무역업 허가취득 (서울시청)
- 1990.12 : 동진정보통신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
- 현 서초구 방배동 910-13 서경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인 터 뷰



“올해는
우리나라 EDI 시작의 원년”

李鍾熙 동진정보통신 사장(43), 전형적인 연구원 타입인 그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소리없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71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뒤 도미, 펜실바니아대학교 대학원 시스템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80년 9월부터는 美 AT&T사 Bell연구소에 들어가 5년간 연구활동에 전념했다.

85년 8월 귀국해서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영전자(주) 전무이사겸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동진을 설립, 경영일선에 뛰어든 그를 만나본다.

▼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대해 한마디씩.

— 정보화의 동반자인 고객우선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사내에선 인간중심의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향후 사업전개에 있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점은.

— 문제는 결국 인력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업계전체가 인력난에 직면해 있으니깐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분야별 전문교육이 가능한 2년제 대학을 설립, 인력을 양성해 보고싶은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 정보통신분야가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 무엇보다 유저를 얼마만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관건이 달려있겠지만 연구인력은 물론 회사 구성원들 모두가 다기능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부서별로 속해있는 사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자기능력의 100%이상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DI관련사업에 회사의 전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EDI환경을 나름대로 진단해 본다면.

—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올해와 내년이 우리나라에서 EDI 시작의 원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 회사의 EDI 투자도 국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시장을 겨냥한 것이었으니깐요.

이제 EDI는 국내표준은 물론 세계와의 호환성이 가능한 국제표준으로 향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신, 무역 등 각종 분야에 대해 업체 및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과 아울러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EDI가 실제업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